

연중 제6주일

제1독서: 레위13,1-2,44-46

제2독서: 1고린10,31-11,1

복. 음: 마르1,40-45

순정이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일을 오직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십시오.”
(1고린 10,31).

강론

하느님도 못말리는 기쁨

김영태 신부 / 인후동 천주교회

나병.
끔찍한 병이다. 구태여 율법을 핑계로 격리할 필요도 없을만큼...

그 병에 걸렸다는 사실만으로도 사람들과-세상에서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과-격리될 수밖에 없다.

그는 더 이상 살아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는 나병에 걸렸다는 이유 때문에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에서 격리되고, 그래서 그는 더 이상 삶을 영위할 수 없다.

그는 공동체 안에서도 그리고 자신 스스로에게도 잊혀진 사람, 그리고 죽은 사람에 불과하다. 그 안에는 빛도 희망도 기쁨도 없고 심지어 고통과 슬픔과 그 밖의 어떤 최악의 것마저 그 자체로 인정받지 못한다. 그저 그는 '없는 사람'-아니 '없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기에 그는 아무에게도 관심을 받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는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관심을 표하고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또 자신을 어루만져 주는 이가 나타난다. 삶을 영위하는 이가 죽음 속에 있는 그에게 손을 내민 것이다. 삶을 영위하는 이가 삶을 영위하는 이들의 공동체 안으로 자신을 끌어들이는 것이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의 살아 있음을, 자신이 여태 숨쉬고 있었음을 깨닫는다. 그 기쁨, 그 환희...

아무도 말할 수가 없다. 자신이 살아 있다는 그 가슴 벅찬 기쁨 때문에 도저히 압전히 있을 수가 없다. 누가 말할 수 있나, 하느님이? 천만에...

세상은 스스로 살아 있다고 말한다. 스스로 숨쉬고 있다고 여기고 있다. 그러면 이 세상 안에서 하느님도 말할 수 없는 기쁨에 차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혹시 스스로 나병에 자신을 내 쫓아치는 사람은 없을까? 그래서 자신은 살아 있는 세상과 무관하다고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만 사는 것은 아닐까? 만일 그렇다면 이들에게 '당신은 살아있소!'라고 관심을 가지는 이, 그래서 이들에게 하느님도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주는 이는 바로 그리스도가 아닌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여러분도 나를 본받으십시오”(1고린 11,1)

소리

없어지는 씨앗들

구정에 앞서 입춘을 보냈고 며칠이 지나면 우수절이니 아직 날씨는 쌀쌀해도 계절은 다시 봄이다. 지금쯤 개구리들도 슬슬 동면에서 깨어날 차비를 하고 있을테고 아직 싹을 틔우지 않은 땅 속의 온갖 씨앗들도 연약하지만 생명력이 넘치는 연초록 싹들을 대지 위로 뻗쳐 올릴 궁리를 하고 있을 것이다.

농부들은 콩이며 녹두, 고추, 수수, 들깨들의 씨앗을 챙겨 해동하는 대지에 뿌릴 작정을 해야할 때다. 그런데 농촌진흥원의 한 연구소가 최근 밝힌 바에 따르면 이들 우리나라 재래 농작물이 8년 전에 비해 4분의 3이나 멸종됐다고 한다.

지난 85년 이후 총 2백20개 품종 가운데 1백63개 품종이 없어졌다니 재래종 가축들이 많이 사라진 것을 아쉬워하는 마당에 놀랍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소출이 많고 품질이 더 좋은 신품종이 개발되거나 수입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신품종이 몇년 뒤에는 소출이 크게 떨어지거나 여러 병해충의 해를 잘 입는데 비해 재래종은 온갖 병해충에 강하고 일정한 소출을 유지하는 장점을 가졌다는데 전문가들의 견해다.

또 재래종이 일단 없어지면 수천년 동안 우리 기후풍토에 적응해 온 귀중한 우리 것을 잃게 되는만큼 우리 모두가 남아 있는 품종이라도 잘 보전하는데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다. ㅅ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1994년 사순절 담화문

가정은 사랑에 봉사하고 사랑은 가정에 봉사합니다

1. 사순절은 주께서 내리시는 은총의 시기로서 우리는 새로운 각오로 참회의 여정을 시작하고, 신앙, 희망, 사랑 안에 성장하며 하느님께서 원하신 계약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은총과 화해를 체험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가정은 사랑에 봉사하고 사랑은 가정에 봉사합니다”라는 주제를 금년 사순절 담화의 주제로 채택한 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삶과 행동 방식을 바꿈으로써 사회생활과 각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가치인 사랑과 연대성을 가정 안에 불러일으키는 능력이 되어줄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2. 무엇보다 저는 모든 가정이 교회와 세계 안에서 수행해야 할 그들의 사명감을 키워가기를 바랍니다. 개별적 혹은 공동으로 드리는 기도를 통해, 신자들은 그들의 마음을 이웃에 대한 관심으로 열어주시면서 그들 안에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모든 것을 새롭게 하러 오시는 성령을 받습니다. 가정은 우리가 형제적 삶 곧 사랑과 연대성을 지닌 삶을 여러 모양으로 실천하고 그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첫째 장소요 으뜸가는 곳입니다. 가정에서 우리는 각자 자기 교유의 위치를 지닌 타인들에 대한 존중심과 열린 마음 그리고 이들에 대한 주의력을 배우게 되며 공동생활은 이기심을 극복하도록 도와주는 나눔의 삶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나눔과 배움의 정신을 배워가는 동안 우리는 공유함에서 오는 무한한 기쁨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3. 특히 험난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모든 가들은 사촌 엘리자벳을 서둘러 방문하고 도움이 필요한 형제 자매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기도한 마리아의 모범을 본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에 대한 하느님의 자비하심을 본받아 “나는 내 백성이 고생하는 모습을 보았고 그들이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다.”(1사무 9,16)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오늘날 우리는 가정들이 안고 있는 빈곤과 고통에 주목해야 합니다. 사실, 많은 가정들이 가난의 한계를 넘어 자신들과 자녀들의 생계를 유지해 갈 능력을 상실했으며 자녀들의 정신과 육체의 정상적 성장을 도와주고 정규 교육을 받게 할 기본능력을 더 이상 갖고 있지 않습니다. 부부와 가정들은 점점 더 정신적 갈등과 대인관계의 문제들을 겪고 있습니다. 때로는 사회문제들이 가정을 파괴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낙태는 이제 다반사가 되어 버렸습니다. 일부 국가들에서는 아동들이 비인도적인 조건 속에서 살도록 강요당하고 있거나 수치스러운 착취를 당하고 있습니다. 노인들과 신체 장애자들은 제정 능력이 없다는 이

유로 소외당하고 있으며 스스로 쓸데없는 존재들이라고 느끼게 합니다. 또 어떤 가정들은 인종, 문화,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그들이 정착하여 살고 있는 나라에서 배척을 당하기도 합니다.

5. 세계적 수준에 달한 이러한 증대한 문제들에 직면해 있는 우리는 침묵을 지키거나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들이 사회와 교회의 기초 공동체인 가정을 파괴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사순절 시기에 저는 가장 가난한 가정들이 그들의 책임, 특히 자녀들에 대한 책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들과의 나눔을 권장하고 싶습니다. 인간은 그 누구도 단지 가난하고 약하거나 혹은 다르다는 이유로 배척되어서는 안됩니다. 가난한 이들은 “구세주의 모습은 지닌 사람들”이며 “하느님의 특혜를 받은 이들”(니짜의 성 그레고리오, ‘빈자에 대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자기 형제 자매들과 가진 바를 나누어 갖기를 요청합니다. 물질적 유대는 형제적 사랑의 가장 근본적이고 으뜸가는 표현입니다.

지구와 그 안에 있는 부는 모든 사람의 소유입니다. 우리가 처한 이 어려운 시대에서는 쓰고 남은 것을 이웃에게 베푸는 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비 생활과 생활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즉 모든 사람들이 골고루 인간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자기에게 필요한 것까지도 이웃과 나누어 갖고 꼭 필요한 물건만을 지녀야 합니다.

6. 저는 모든 교구와 본당 공동체들이 가난한 가정을 도와야 하는 필요성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강구책을 찾아내도록 권유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시민기관들에 참여함으로써 곤경에 처한 가정들을 도와야 하는 절박한 의무에 사람들의 주의를 모아야 합니다. 저는 모든 국가의 지도자들에게, 국가와 국제적 차원에서 빈곤, 특히 가정 빈곤의 악순환을 종식시킬 방법과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다시 한번 호소하는 바입니다.

7.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1994년을 세계 가정의 해로 설정한 유엔의 창안을 환영합니다. 어느 곳에서나 교회는 세계 가정의 해의 행사에 기꺼이 협력할 것입니다.

사순절 동안 가정들을 위하여 그리고 가정들이 실천한 애덕 행위들이 모든 이들에게 큰 기쁨을 가져다 주고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신 무활하신 그리스도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모든 이들에게 저의 사도적 강복을 기꺼이 보내드립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객도, 개답 묘지공사 전문

삼 레 중 기

포크레인, DH028뿌레카, MX0.3타이어, 볼도자, 4.5t덤프, 2.5t덤프

장영태(요셉)
임은순(히야친따)

☎ 291-4041 팩팩 012-677-4489

특수 헤어스타일
신부화장·드레스마춤 대어
최윤경 (유리안나)

미용실·미용학원

학생 수시 모집
속성발모·피부미용과
이리시 중앙동3가 7-1

☎ 841-2496, 855-8653

한국 최고의 유행수질 전주 송산 온천

최대의 시설, 신비의 모래썰

국장호(요셉)
유숙자(수산나)

☎ 88-0887, 88-0888

웨딩드레스 전문점 신부의 집

전주점 관동로 88-6951
군산점 평화동 42-2552

최영자(헬레나)

잡간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사순절이란 부활을 준비하기 위해 40일 동안 통회와 보속, 희생으로 재를 지키는 기간을 말한다. 사순절은 이미 초대교회에서부터 시작되었으며 3세기 초까지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지 않고 부활 전 2-3일부터 회개와 단식을 지키다가 한동안 6주간 중 주일을 제외한 36일을 지켰으며 325년 니체아 공의회에서 40일로 정하였다. 현재처럼 재의 수요일부터 시작하여 40일을 준비하게 된 것은 대 그레고리오 교황(590-640) 때부터이다.

성서에서 40이라는 숫자는 중대한 사건을 앞두고 준비하는 기간을 상징하며 정화하는데 필요한 기간으로 나타나고 있다. 노아의 홍수, 이스라엘의 광야생활, 모세의 십계명, 엘리야가 호렙산에 가기 위해 40주야를 걸음, 또한 예수께서 공생활 시작 전 40주야를 단식하심, 부활 전 40일 동안 지상에 머무르심 등이다.

오는 16일(수), 우리는 또다시 사순절을 시작하는 재의 수요일을 맞이하게 된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기도하시고, 재를 지키심을 본받아 현세의 온갖 물욕과 금욕, 죄악의 굴레에 사로잡혀 있는 인간을 향해 "사람아, 너는 먼지이니 먼지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라."(창세 3,19)는 말씀을 생각하고, 전 인류의 구원을 위해 고통과 수난을 당하시고, 어둠의 세력인 악과 투쟁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체험하며 회개와 보속으로써 우리 신앙생활을 쇠신하여 찬란한 기쁨의 부활을 맞이해야겠다.



교구소식

1. 구역반장 연수: 2월14일(월) 오전10시 중앙 성당 대상-북전주지구, 15일(화) 오전10시 전 동 성당 대상-남전주지구, 16일(수) 오전10시 둔율동 성당 대상-군산·옥구지구, 17일(목) 오전10시 창인동 성당 대상-이리·익산지구, 18일(금) 오전10시 요 촌 성당 대상-김제·정읍지구.
2. 천호 피정 안내: 2월15일(화) 주제-믿음의 생활·기쁨의 생활, 강사-범석규 신부, 문의 73-6600.
3. 신임교사 학교: 2월15일-18일 명덕 수련원.
4. 가톨릭 방송인회: 2월14일(월) 오후7시 가톨릭센터 1층 회의실.
5. 가톨릭 사진가회 촬영모임: 2월20일(일) 오전7시 가톨릭센터.
6. 신학생 동계연수: 2월15일-17일 나바위 피정의 집.
7. M.E. 49차 주말: 2월18일-20일 천호 피정의 집.

● 성소모임 전교가르멜수녀회: 2월20일 오후2시 서신동 성당 수녀원 (0652)74-9262. 성모영보수녀회: 2월20일 오후2시 상지원 수녀원 (0653)862-0880.

돈 보스꼬 청소년센터
기술훈련생 모집
 · 대상: 만16세-23세의 男 · 직종: 선반, 기계조립 · 학력: 중학교 중퇴-고졸 · 야간학교: 검정고시반, 방송통신고반, 고급기술반 ·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2.28까지 · 문의: ☎(02)833-4010

매일 주의 말씀 듣는 생활
공동번역 입체 낭송 성경
 성우 100여명 출연 실제처럼 제헌, 남편의 출퇴근시, 부인의 가사일중은 가족의 저녁시간에, 눈이 어두우신 어른도 하루 하나, 분당·단체·지구별 대리점 접수송 송기영(안드레아) ☎(0681)32-3337

진선미 꽃집
 각종 생화
 신부 부케 전문
미지트 원목가구
 중앙동 대리점
 이명자(마리아)
 범덕배(디또)
 전주백화점 옆
 ☎ 진선미 84-2628
 미지트 84-8725

자연과 인간의 평화를 위하여

헤어스프레이 보관법(2)

혼합물을 펌프로 작용되는 용기에 담아 냉장고에 넣어 두고 쓰면 값싸고 안전하면서 유독성이 없는 스프레이가 된다.

백제 꽃시장
 제일 예식장 앞
 ☎ 78-2002
금암 꽃나라
 금암아파트 앞
 ☎ 73-0574
 서은석(필립보) · 양소은(테레사)

종합 광고물 제작업체
무지개 광고기획
 기념품, 상패, 간판
 김창식(스테파노)
 ☎252-0207 FAX: 252-0208
 ☎ 015-681-0898

산농서실
 고영선(마태오)
 송준섭(로사리아)
 효자우전 성당·삼호APT앞
 (실내 스케이트장 앞)
 ☎ 225-5580

☐ 남전주지구 본당소식 ☐

*** 노송동** 사제관 82-9663 사무실 82-9661 주임신부 박진량
수녀원 82-9662 사목회장 김동주

◎ 연중 제6주일

◎ 주일 헌금 및 교무금 납부에 협조바랍니다.

1. 재의 수요일: 16일(단식, 금육)
* 재의 예식-저녁 7시
2. 사순절 사랑의 성금 접수: 사무실
3. 반회장 연수: 15일 전 10시, 전동 성당
4. 신임 교사학교: 15~18일 명덕 수련원.
5. 모임: ①장우회(오늘 장엄미사 후) ②꾸리아(오늘 천사의 모후-장엄미사 후, 자비의 모후-후 2시) ③대건회(20일 장엄미사 후) 6. 알림: 15일은 반회장 연수 관례로 새벽미사.
7. 금주 청소: 인후2,3반, 차주 청소: 인후4,6반.

*** 복자** 사제관 86-3453 사무실 86-3455 주임신부 정승현
수녀원 86-3454 사목회장 황길평

1. 재의 수요일: 26일 오전 10:30 미사. 단식, 금육.
2. 반장 연수: 15일 오전 10시, 전동 성당.
3. 회합: ①요셉회, 해설자 모임-오늘 공식미사 후
②꾸리아-오늘 오후 2시
③성우회-20일 공식미사 후
4. 예비자 교리: 20일부터 시작합니다.
금주 전례: 해설-유복규, 독서-김현덕 씨
봉헌-이준철 씨 가족
차주 전례: 해설-허정식, 독서-전호승 씨 부부,
봉헌-김영기 씨 가족

*** 상관** 사제관 85-6654 사무실 85-6652 주임신부 한불섭
수녀원 85-6653 사목회장 양주태

◎ 사순절은 회개와 보속, 그리고 은총의 시기입니다.

1. 모임: ①안나회-공식미사 후 ②장년회-19일(토)
2. 재의 수요일: 16일(단식과 금육)
3. 성지가지 사무실에 내주세요.
4. 구역, 반장 연수: 15일(화) 오전 10시, 전동 성당
5. 제대 꽃 봉헌바랍니다.
6. 예비자 교리: 매 주일 오전 9시, 수녀원
7. 탈상 미사: 14일(월) 오전 10시, 백암리 최상옥 씨 대.
8. 차주 전례: 해설-유만순, 독서①남현준 ②이순자
봉헌-이준희 씨 부부

*** 서학동** 사제관 84-8307 사무실 86-4929 주임신부 이종원
수녀원 84-2276 사목회장 민병부

◎ 연중 제6주일

1. 프란치스코 3회: 2월13일(오늘) 오후 2시
2. 사목회: 2월15일(화) 오후 8시30분.
3. 성모회: 2월20일(다음 주일) 공식미사 후
4. 재의 수요일: 2월16일(수) 단식과 금육일
5. 구역(반)장 연수: 2월15일(화) 오전 10시. 장소-전동 성당(명기구, 미사도구)
6. 울뜨레아: 2월16일(수) 저녁미사 후.

*** 용머리** 사제관 88-3872 사무실 87-0441 주임신부 현유복
수녀원 81-0441 사목회장 이규세

◎ 연중 제6주일.

1.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재의 예식: 16일(수) 미사중에, 많은 참여바랍니다. 금식, 금육
2. 자모회: 18일 어머니미사 후, 전원 참석바랍니다.
3. 주일학교 개학: 19일. 3시 교리, 4시-미사.
4. 1가구 1마리씩 꽃꽂이 분양합니다. 잘 키우시기 바랍니다.
5. 공식미사 후: 꾸리아.
6. 청소 봉사: 2구역 1반, 2반, 3반.

*** 전동** 주임신부 81-0098 보좌신부 82-7245 주임신부 김봉희
사무실 84-3222 수녀원 82-9234 보좌신부 이완재
FAX 82-6232 유치원 84-8347 사목회장 이명행

◎ 연중 제6주일(금일 특별 강론: 사회복지분과)

1. 금주: ①자모회(전 10시) ②이완재(다두) 신부님 환영식(공식미사 후) ③일치의 모후Cu(후 2시) ④사목회(후 8시)
2. 성모회: 15일(화) 오전 11시.
3. 구역반장 연수회: 15일 오전 10시. 장소-전동 성당. 대상-남전주지구 구역반장.
4. 신임 교사들을 위한 교사학교: 15일~16일, 명덕 적십자 수련원.
5. 치명자산 새벽미사: 재의 수요일(16일)부터 40일 동안.전 5시30분.
6. 배에따회: 16일(수) 오전 11시.
7. 구역반장 회의: 17일(목) 오전 11시.
8. 차주: ①바나의 성모Cu(후 2시) ②청년회(후 2시)

*** 평화동** 사제관 85-6979 사무실 83-8245 주임신부 이재후
FAX 82-6686 수녀원 87-0229 사목회장 강삼근

◎ 재의 수요일: 16일 11시 어머니미사. 7시30분 아버지미사 금식과 금육제를 지키고 모두 재의 예절에 참여합니다.

1. 사목회 삼일위원회: 17일 저녁 8시. 작품 전시회 준비.
2. 신임 교사학교: 15일~18일 명덕 수련원. 부모님의 협조바람.
3. 농촌 49차 ME: 18일~20일 광소 교우들을 환영합니다.
4. 주공APT 형제회(짜교우 초대): 14일 저녁 8시.
5. 구역, 반 미사: 15일 5-1 전 10시. 5-2 후 3시(윤미자 발렌티나 축성미사) 5-3, 4 저녁 8시. 17일 4-1, 2, 3 전 10시. 4-4 후 3시. 18일 3-1 전 10시. 3-2, 3 저녁 8시. 19일 3-4 전 10시30분.
6. 회의: 성모회, 빈첸시오회-16일, 제대회-18일 후 3시.
7. 축! 혼배: 심상백, 이성희-20일 12시40분 동백 예식장.

*** 화산동** 사제관 221-9843 사무실 221-9842 주임신부 이설우
사목회장 한병갑

1. 성모회: 오늘 낮미사 후.
2. 구역반장 연수: 15일(화) 오전 10시 전동 성당.
3. 자모회: 16일(수) 오전 11시30분
4. 대건회: 17일(목) 오후 8시30분
5. 신임 교사학교: 15일(화)~18일(금) 명덕 수련원
6. 울뜨레아: 다음 주일 낮미사 후.
7. 가족 미사: 금주-성원월드. 차주-2(B)
8. 제2차 MBW 교육: 25일(금)~27일(일)
금주 전례: 최준성, 정준성. 독서·봉헌-최승자, 김기성
차주 전례: 김희숙, 한병갑. 독서·봉헌-이영일, 황윤주

*** 효자동** 본당신부 223-3824 사무실 223-3821 주임신부 김치삼
보좌신부 223-3823 수녀원 223-3822 보좌신부 송영진
FAX 223-3821 사목회장 이동섭

◎ 오늘은 연중 제6주일

1. 울뜨레아: 오늘 저녁미사 후(교육관)
2. 자모회: 15일(화) 오전 11시
3. 성모회: 16일(수) 오전 11시
4. 구역반장 연수회: 오전 10시(전동 성당) 구역, 반장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참가비 5,000원)
*삼천신협 정기총회: 18일(금) 오후 2시
*예비자 입교식: 2월20일(일) 11시 미사 후에 있습니다.(예비자 인도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교리시간: 청년반(수, 오후 8시) 주부반(목, 오전 10시) 학생반(토, 오후 8시) 직장인(일, 오전 9시30분) 노인반(금, 오전 10시)

*** 효자우전** 사제관 221-3721 사무실 221-3711 주임신부 김순태
수녀원 223-0715 사목회장 엄익도

1. 모임 안내: ①울뜨레아-공식미사 후
②기우회-공식미사 후
③빈첸시오회-14일(월) 오전 10시
④구역분과-17일(목) 10시 미사 후
⑤제대회-18일(금) 10시 미사 후
⑥반석회-19일(토) 저녁 7시
⑦성모, 성심회-18일(금) 10시 미사 후
2. 재의 수요일: 16일(수) 저녁 7시. 금식과 금육입니다.
금주 전례: 해설-권정희, 독서①조재용 ②김경숙
봉헌 안내-베회집 부부